Homo Migrans Vol.13 (Nov. 2015): 103-123

논문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On échoue toujours à parler de ce qu'on aime.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데 언제나 실패한다.
Roland Barthes(1984)

김 주 은

Ⅰ. 사랑을 말하는 것의 불가능성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왜 어려운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데 언제나 실패한다."[1] 사랑 담론은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형성되어왔지만, 그 모든 담론들은 사랑을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사랑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일은 사랑을 지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랑 주변부의 것들, 사랑의 정황들이나 효과들에 의해 대리-설명될 뿐이다. 예컨대 사랑을 형용하기 위해 설렘, 그리움, 환희 등의 정동을 나열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반응들을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화심리학적·생물학적·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사랑을 분석하려 했던 방법론들 역시 사랑의 관행들이나 현상들을 귀납적으로 추론하거나, 인과 관계로 도출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를테면 진화심리학에서 사랑을 번식과 생존 본능에 따른 심리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방식을 귀납적으로 추론한 결과일 뿐, 동성애와 같은 예외적 사례들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또 생물학이 사랑을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신경화학물질이 분비된 결과로 보고 사랑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반응을 사랑의 원인으로

1) Roland Barthes, "On échoue toujours à parler de ce qu'on aime", *Le Bruissement de la Langue* (Paris: Seuil, 1984), pp. 333-342.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한편, 회화·음악·영화·문학 등에서 사랑이 대표적인 소재로 등장했던 것은 오히려 사랑의 일반론이 불가능함을 반증한다. 사랑을 재현하려는 시도는 차라리 대상을 우회적·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에서 성취되기 쉬웠을 것이다. 스탕달(Stendhal)이 『연애론(De L'Amour)』이란 수필집에서 "사랑에 관한 진리를 기록하려 애쓰고 있는데, 여태껏 늘어놓은 이야기들이 모두 쓸데없는 넋두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두렵"[2]다고 쓴 것은 이러한 까닭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사랑에 대한 지적 탐구의 영역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현대 철학의 경우에는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알랭 바디우(Alain Badiou) 등의 사상가들이 사랑을 사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이 자신들의 사유를 개진하는 가운데 종종 사랑의 영역을 등장시킨 이유는 사랑이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는 오랜 철학적 주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 사랑의 존재론적 위상은 사랑이 의미론으로 포착될 수 없는 장소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획득된다. 사랑은 해석학의 기대 지평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불쑥, 의미 체계를 중지시키면서 도래한다. 마치 소크라테스(Socrates)의 대화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아토포스(atopos)라고 부름으로써 어떤 장소에도 고정될 수 없는, (의미의) 장소를 결여한 자로서의 지위를 그에게 부여한 것처럼, 사랑 역시 아토포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내 욕망의 특수성에 기적적으로 응답하러 온 바로 그 유일자, 단독적 이미지"[3], 즉 아토포스적 대상은 어떠한 상징적 도식으로도 분류될 수 없다. 사랑의 무대는 기표가 결여된 텅 빈 공간으로서만 비로소 그 자리를 가지는

2) Stenhal, 권지현 역, 『연애론』 (서울: 삼성출판사, 2007), 68쪽.

3) "Est atopos l'autre que j'aime et qui me fascine. Je ne puis le classer, puisqu'il est précisément l'Unique, l'Image singulière qui est venue miraculeusement répondre à la spécialité de mon désir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매혹시키는 그 사람은 아토포스이다. 나는 그를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 욕망의 특수성에 기적적으로 부응하러 온 바로 그 유일자, 단독적 이미지다)" 강조는 인용자. Roland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aris: Seuil, 1977), p. 43.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징의 세계를 살고 있는 한, 사랑이 아무리 존재론적 성격을 지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질화하는 표상들은 결국 기호의 체계 속에서 발견된다. 사랑은 의미화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의미화됨으로써만 재현된다는 필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의 고통은 이러한 패러독스에 의해 야기된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 사유함과 동시에 의미의 형식을 조건으로 삼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사랑의 언표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가? 존재인가? 의미인가?

Ⅱ. 사랑은 타자-존재를 조우하게 하고

질문을 보다 일상적인 차원으로 바꿔보자.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가치들, 예컨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 아름다움 따위의 성질들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someone)'을 사랑하는가, '어떤 것(something)'을 사랑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사랑에 대한 데리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데리다는 사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the who)'와 '무엇(the what)' 사이의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랑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이(거나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거나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 역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무엇'을 사랑하는 것 간의 분리와 갈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사랑의 충실성은 그 간극에 의해 시험 받는다.[4)]

4) Amy Ziering Kofman, *Derrida*[DVD] (Jane Doe Films, 2002).

여기서 가장 큰 비극은 어떤 이의 '무엇'을 사랑하는 일이 그 대상을 끝없이 상상-오해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당신의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식의 선언이 쉬이 철회되고 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상상이 오해였다고 판명될 때, 그 사랑은 중단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은 그 사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 대상들에 거주하지 않는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라면 이처럼 '무엇'을 갈망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기 보단 차라리 욕망이라 불렀을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대개 페티시스트적으로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부분 대상을 욕망한다"라는 라캉의 유명한 명제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사랑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어떤 이의 존재 자체, 즉 타자 고유의 단독성(singularity)에 기꺼이 다가가는 일련의 과정과도 같다. 이때 타자의 단독성은 동일자적 자아로 전체를 환원할 수 없는, 동일자의 논리가 가닿지 못하는 장소로부터 온다. 사랑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설렘, 또는 고통 등의 감정은 '당신'이 결코 '나'와 동일자일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사랑하는 대상은 늘 타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이렇게 비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 계산 불가능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사랑의 대상이 언제나 낯선 무엇으로 도래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타자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이방의 것으로서의 타자성[5]을 조우하는 일과도 같다.

레비나스는 "사랑을 이끄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다른 성질이 아니라 상대방의 타자성"이라는 말로 같음이 다름을 흡수해버리지 않는, 타자성을 보존하는 관계 맺기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바디우 역시 사랑은 "하나가 아닌 둘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그 세계는 "동일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차이로부터 검증되고, 실행되고, 체험된 세계"[6]라고 썼다. 물론 바디우는 더 나아가 사랑이란

5) Emmanuel Levinas,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서울: 다산글방, 2000), 84쪽.

6) Alain Badiou, 조재룡 역, 『사랑예찬』 (서울: 길, 2010), 32쪽.

탈중심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더 무게를 실으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은 차이를 단순히 경험하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랑론을 레비나스의 초월적·윤리적 사랑론과 구분 짓지만, 존재의 둘을 하나로 완벽히 융합시키는 낭만적 사랑의 도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한다. 타자를 타자일 수 있도록, 타자를 타자로서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사랑이라 불릴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과도 같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차는 "타자성을 안전하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맨살에 가장 가까이 가는 모험 속에서 내게 포획되지 않는 부재로서의 당신을 하염없이 불러내는 경험"[7]의 연속이다.

이처럼 사랑이 타자-존재와의 조우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불가능한, 아니 오히려 불가능해야만 하는 당위를 제공한다. 사랑에는 합의된 기억이 없다. 또한 사랑은 언제나 새롭게, 다시 쓰이기에 그 시간에는 앎의 축척도, 배움도 없다. 사랑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차라리 지식이라 불려야할 것이다. 지식이야말로 합의된 기억과 앎의 체계 내에서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의 형식들과 그 변천을 인류사적·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할지언정, 본질로서의 사랑에는 역사라 할 것이 없다.[8] 설령 사랑의 역사가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증언의 역사일 것이다.[9] 이는 사랑이 타자-존재를 만나는 계기인 탓에, 그래서 사랑을 통해 조우하게 되는 존재가 항상 이방인인 탓에,

7) 김행숙, 『에로스와 아우라』 (서울: 민음사, 2013), 87쪽.

8) 사랑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예컨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은 사랑이 순수한 사회적 고안물이라는 가정 하에,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사랑의 유형을 숭고한 사랑·정열적 사랑·낭만적 사랑·문제적 사랑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랑의 재현 양상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에서 비롯된다. 루만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랑의 향유 방식들이 사회의 내적 가치를 재해석하는 코드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사회학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Niklas Luhmann, 정성훈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서울: 새물결, 2009)

9) 본문에서의 증언은 플라톤적 로고스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언술 행위를 뜻한다. 증언은 재현의 틈에서 재현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에서 증언일 수 있다. 따라서 증언은 허구의 모습으로만 증언될 수 있다. 증언은 의미에 난 상처, 즉 외상적 진실(traumatic truth)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증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Jacques Derrida, 진태원 외 역, 『에코그라피』 (서울: 민음사, 2014), 161-189쪽.

그에 대한 경험이 동일자의 언어로는 식별될 수도, 재현될 수도 없는 까닭이다. 각자의 사랑이 모두 다르고, 또 매번 다르게 소묘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과 맞닿는다. 사랑의 명명 불가능성과 비일관성은 사랑을 모호한 무엇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채로, 그저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러한 증언은 타자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 유의미해진다.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가 <헛소리 1: 어리석은 처녀(Délires I: Vierge Folle)>라는 제목 아래 "사랑은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10]라고 썼을 때, 재발명되어야 하는 것을 타자에 대한 발명 그 자체라 읽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타자와의 만남 이전에 수립된 의미 체계에서는 재현될 수 없었던 타자-존재를 발명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발명은 타자-존재를 반복해서 증언하는 일을 통해 끊임없이 재발명됨으로써 사랑을 지식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동일자의 논리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한다. 마치 데리다가 환대란 (어떤 지식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우리는 환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해야)하는 것이다.[11]

Ⅲ. 동일자의 제국에서 사랑하기[12]

1.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

10) Arthur Rimbaud, "l'amour est à réinventer.", *Une Saison en Enfer* (Bruxelles: Alliance typographique, 1873), p. 22.

11) Jacques Derrida,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2004), 103쪽.

12) 본 장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제 2장 '연애의 자본주의적 재생산과 새로운 연애 담론', 제 3장 3절 '감정분석서비스와 커플애플리케이션, 사랑 검증 시스템', 제5장 1절 '연애 상품의 소비 주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내용 중 일부분을 요약 및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 김주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연애 담론과 양식: 연애 상품의 체계와 테크놀로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4), 18-35쪽, 56-63쪽, 100-116쪽.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랑은 어느새 사랑을 일관된 지식의 대상으로 환원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의 사랑에는 타자와의 만남이 있는가? 작금의 관계 맺기는 안전한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 타자가 나의 존재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 타자에 의해 나 자신이 타자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타자의 타자성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소거하려는 조치로 이어진다. 특히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타자를 가족 집단으로 맞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동일자의 제국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랑만을 허락한다. 가족은 동질성으로 뭉친 가장 최소 단위의 집단이며, 그 가운데에는 혈육과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낭만적 사랑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낭만적 사랑은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서 사랑과 성, 결혼의 합일을 그 골자로 한다. 낭만적 사랑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 결혼은 두 가문의 전략적 결합이라는 목적 아래 정치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다.[13] 이러한 결혼 제도가 일반적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던 사회에서 결혼과 사랑은 쉽게 분리되곤 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이 개인의 삶에 어떤 서사(narrative)의 관념을 도입"[14]하면서부터 사랑과 결혼은 융합되기 시작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사랑과 결혼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가족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랑의 현실적인 조건이자 장애가 되었다.

바디우가 정치와 국가의 관계를 사랑과 가족의 관계에 빗대면서 사랑의

13) 따라서 결혼은 오늘날 시장과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대부분을 대신했다. 물자와 사람의 생산과 분배를 조직했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맹 수립을 원활하게 도왔으며,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한 분업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性)적인 관계에서부터 재산상속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했다. Stephanie Coontz, 김승욱 역, 『진화하는 결혼』 (서울: 작가정신, 2009), 21-28쪽.

14) Anthony Giddens,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2003), 78쪽.

지평에 가족이 존재하는 것은 사랑을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사랑의 관리를 사회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지점에서 옳다.[15] 가족 제도 내에서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부 환대의 법칙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자와 받아들일 수 없는 타자를 경계 짓는 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랑은 대개 부정되거나 가족의 경계 밖으로 추방된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영토는 그 영토를 중심으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타자를 선별하는데, 이때 타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가족의 법에 순응할 수 있는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의미화될 수 있는가 등 이다. 마치 국가가 타자에게 우리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이방인의 자격을 묻는 것처럼, 가족은 타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청한다.

한편, 타자가 가진 환대의 자격을 보다 적확하게 판가름하기 위해 타자의 모호성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 역시 강구되고 있다. 낭만적 사랑이 이성을 중요시하는 근대적 사랑의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근대 이후, 이성(reason)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 존재의 합당한 근거(reason)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근대적 합리성은 감정을 이해하고 협상하게 하는 근본적 문화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고쳐 쓰게 되는데, 그 결과 사랑의 성격 역시 예측 가능한 것, 계산 가능한 것,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변모한다.[16] 타자의 모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방법들이 대개 상품의 형식으로 판매된다. 사랑 장치라 불러도 좋을 이 상품들은 사랑을 시장가치라는 거대한 동일자의 촘촘한 교환 관계식으로 끌어온다.

---

15) Badiou, 『사랑예찬』, 66쪽.

16) 근대적 합리성의 중심에는 특히 '계산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자리잡고 있다. 자연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근대과학이라면, 그런 과학을 통해 신비한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 근대적 이성이었으며, 그런 계산을 통해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 근대적 생활방식이다. 즉 근대적 합리성은 계산과 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통제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본주의 사회와 사랑 장치

자본주의 사회는 존재 일반을 시장경제 체계 안으로 편입한다. 교환과 거래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삶의 영역들은 점차 시장경제 안에 포섭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에 따라 계량화될 수 없었던 부분들마저도 동일자의 논리를 따르는 화폐의 추상적 보편성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그 결과 타자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꾸려나가는 연대의 방식과 성격이 자본제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현하기에 이르렀다. 사랑과 관련된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예증이다.[17] 이러한 사랑 장치들은 인간이 몰입하는 감정의 영역, 개별적인 사랑의 경험을 자본의 동질적 확장의 범주 안에 가둔다. 연애상품의 소비자들은 자본의 보편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욕망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 경제적 객관성이라는 가치 기준을 내면화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애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들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으며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객관성의 영역으로 소환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랑에는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즉 타자의 타자성이 가능한 삭제된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아픔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미틱>의 광고 문구는 타자-존재를 만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17) 필자는 이처럼 상품화된 사랑 장치를 '연애상품'이라 명명하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연애를 보조·보완하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상품의 역할은 '연애 기술 교육', '만남 주선', '관계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각 기능에 따라 '연애전문교육시스템(연애코칭)', '소셜네트워크데이팅(온라인데이팅서비스)', '감정분석서비스' 등으로 상품 유형이 구분된다. 연애전문교육시스템은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찾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이며, 소셜네트워크데이팅은 온라인을 통해 커플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한국에서는 <이츄>, <이음> 등이 대표적이다. 연애상품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제1장 3절 '연구 대상과 방법'을 참조. 김주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연애 담론과 양식: 연애 상품의 체계와 테크놀로지」, 1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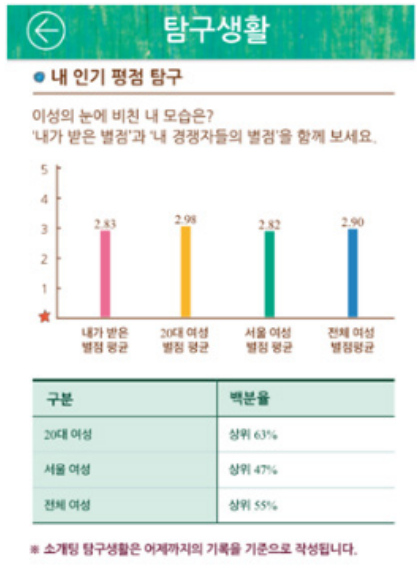
가르쳐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18] '고통 없는 사랑하기'는 '타자를 삭제함으로써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사랑하기'라고 고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 없는 사랑을 매개하는 연애상품들은 증여와 답례라는 교환관계식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서 교환되는 것은 데리다가 '무엇(the what)'이라 지칭했던 것들, 이를테면 외모, 집안, 학벌, 연봉, 직업 등의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연애자본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연애시장에서 이들이 교환되는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마치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처럼 개인의 고유성이 교환가치가 되며, 그 가치들의 교환은 등가거래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높은 연애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그에 준하는 교환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세속적 통념은 연애상품을 통해 정식화된다. 매칭서비스를 통해 맺어진 커플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여성의 신장이 1cm 커질수록 남성의 연봉이 62만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은 연애자본의 교환관계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19]

18) <미틱>은 온라인데이트서비스 중의 하나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만남을 주선해주는 매칭 서비스이다. 바디우는 『사랑예찬』에서 <미틱>의 광고 문구를 지적하며 "사랑의 안전한 개념을 부각시키"는 "프로파간다"라 비판한 바 있다. Alain Badiou, 『사랑예찬』, 16쪽. 온라인데이팅서비스 산업은 미국에서는 1995년부터, 유럽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동되어 현재는 거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을 넘어섰으며, 2009년-201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기혼자 7000여 명 중 약 17%가 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19) 김용학과 윤효영은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시장에서의 '교환이론'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인상등급이 '높음'이나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여성의 경우 '매우 낮음'으로 분류된 여성에 비해 소득이 755만원 가량 높은 남성과 매칭에 성공했다. 김용학, 윤호영, 「결혼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한국인구학』, 제36권, 3호(2010), 72쪽.

[사진 1] <이츄> 매칭 이성의 프로필[20)]



[사진 2] <이츄>의 매력진단서[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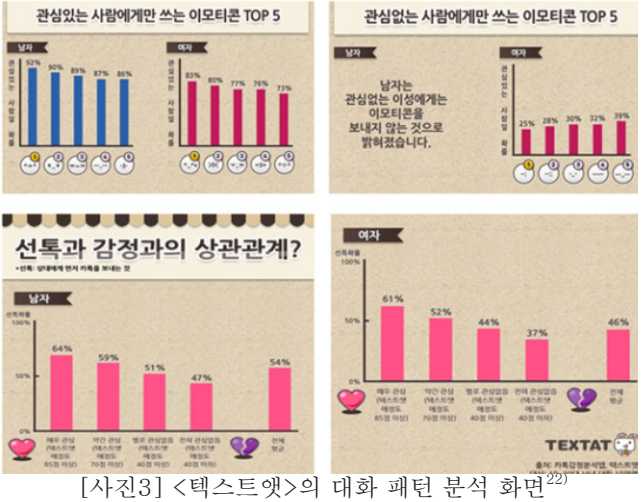
매칭된 이성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살펴보면 연애상품에서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류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고유성은 사진·나이·사는 지역·직장·학교·종교·혈액형·신장·체중·음주와 흡연 유무 등의 몇 가지 항목들로 환원되고, 상품을 통해 제시된 일정 규격에 따라 틀지어진다. 연애상품이 제공하는 교환의 장에선 어떤 사람(someone)이 어떤 것들(something)로 기표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표들은 연애상품의 소비자들에 의해 상호 평가되어 점수화·계급화되기도 한다. 이로써 연애상품은 개인의 질적 가치를 양적 가치로 치환하는 장치이자, 동시에 연애자본들 간의 사회적 가치를 견주면서 어느 한쪽이 '손해'보지 않는 합리적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

20) <이츄>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자가 직접 캡쳐. (검색일: 2013년 10월 27일)

21) 타인들로부터 평가된 이용자의 인기도를 백분위로 표시해주는 <이츄>의 '매력 진단서' 화면. <이츄>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자가 직접 캡쳐. (검색일: 2013년 10월 27일)

한편 오늘날의 사랑에서 '손해'라는 단어가 비단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노력, 정성, 관심의 범주에서도 해당된다. 사랑을 일종의 감정적 에너지라고 간주했을 때, 에너지의 수지 균형이 맞는 사랑을 지향하는 것이다. 마음의 쓰임, 즉 사랑을 하는 동안 소모되는 감정의 양을 수치화, 계량화하는 상품이 탄생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감정분석서비스라고 불리는 <텍스트앳(TEXTAT)>은 사랑의 가능성을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여 측정해주는 대표적 장치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앳>은 핸드폰을 통해 주고 받은 문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호감도를 측정해주는 '감정분석 모델 STEAM(Statistics-based Text Emotion Analytic Model)'을 발명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주고받은 문자언어의 모든 문장들을 비표준어나 은어,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은 문장까지 고려한 후 형태소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과학적 도구이다. 이러한 발명품의 등장은 오늘날의 사랑이 비용과 효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친밀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감정의 중단과 보류, 눈치 싸움 등을 거친 의식적 절차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3] <텍스트앳>의 대화 패턴 분석 화면[22]

22)<텍스트앳> 공식 홈페이지에서 필자가 직접 캡쳐, http://www.textat.co.kr (검색일: 2013년 10월 27일)

이처럼 사랑 장치를 통해 개인의 가치가 기표로 상호 교환되는 동안, 또 관계의 친밀성이 실증적으로 계산되고 검증되는 동안, 사랑은 '어떤 사람'에서 '어떤 것'으로, '누구'에서 '무엇'으로, '존재'에서 '의미'로 치환되고 만다.

Ⅳ. 다시, 잔여의 것에 대해 말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관계식 속에서 정작 몫으로 성립되지 않은 채 부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바로 사랑이다. 외모, 연봉, 학벌과 같은 연애자본을 셈하는 일이나 감정의 쓰임을 재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존재를 가치의 의미 체계에 따라 기표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표에 대한 욕망은 그 소요가 상실됨과 함께 해체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랑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힘은 사랑이 계산들, 분석들 이후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절대적 잔여라는 점에 있다. 사랑은 기표가 다 소진하지 못한 나머지의 장소에 존재한다. 따라서 사랑의 출현은 곧 나머지의 출현을 뜻한다. 동일자의 논리에 사이-공간을 내는 동시에 그 틈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의 언표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로 다시금 돌아가 보자.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담론의 영역 안에서 존재는 일종의 재현을 통해 거기에 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사랑이 재현의 잔여라면 사랑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말하기이다. 사랑의 말은 한 박자씩 어긋난다. 그리고 이러한 어긋남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 장애로 작용한다.

바르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흡사 언어로 그를 어루만지는 행위인 듯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언어는 살갗이다". 그는 "마치 손가락 대신 말이란 걸 갖고 있었던 것 마냥, 혹은 내 말들의 끝에 손가락이 달려있는 것 마냥, 나는 그 사람을 내 언어로

어루만진다"[23]고 적었다. 이때의 말들은 마치 애무와도 같을진대, 문제는 언어가 하는 애무가 자꾸만 실패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야기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지만, 그 건넴은 내 사랑의 말들이 가다르길 바라는 존재가 아닌, 어떤 기표를 향해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만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비록 닿지 못할 말일지언정, 사랑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마치 플라톤의 『향연(Symposion)』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정작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청취자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가톤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기표 너머의 존재를 어루만지기 위해, 기표를 통해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24] 이와 같이 사랑을 말하려는 시도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행위로 치부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행위는 사랑을, 잔여로서의 무엇을, 그 모호함을 세계 내에 기입해내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랑을 현실 속에 맥락화하고, 현실태의 사랑이 어떤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미래와의 관계이고 현존해있는 세계 안에서 결코 현존해 있지 않은 것과의 관계, 모든 것이 현존해 있을 때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과의 관계"[25]라고 일축하면서 타자성을 외재적

23) "Le langage est une peau: je frotte mon langage contre l'autre. C'est comme si j'avais des mots en guise de doight, ou des doigts au bout de mes mots", Roland Barthes, *Fragments d'un Discours Amoureux*, p. 87.

24) "on pourra dire que tout propos qui a pour objet l'amour(qeulle qu'en soit l'allure détachée) comporte fatalement une allocution secréte (je m'adresse à quelqu'un, que vous ne savez pas, mais qui est là, au bout de mes maximes). Dans le Banque, cette allocution existe quet-être: ce serait Agathon qu'Alcibiade interpellerait et desirerait, sous l'écoute d'un analyste, Socrate. (사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는(그 초연한 어조가 어떠하든 간에) 필연적으로 어떤 은밀한 담화 행위를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저기 내 격언의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이런 유형의 담화는 존재한다. 소크라테스라는 분석자의 청취하에 알키비아데스가 말을 걸고, 욕망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가톤일 것이다)." *Ibid.*, p. 88.

25)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6), 108쪽.

초월성에 기대어 신비화했다. 그리하여 레비나스는 애무를 결코 손에 닿지 않는 자를 더듬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애무의 추구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애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애무에서의 접촉은 "다른 어떤 것, 언제나 다른 것, 언제나 접근할 수 없는 것, 언제나 미래에서 와야 할 것"[26]을 향해있다.

그런데 타자를 미래형의 존재로 두는 것은 주체를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체는 절대자이자 무한자인 미래의 타자를 마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자가 나에게로 다가왔을 때, 그 다가옴을 하나의 명령으로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타자는 나를 압도해버리고 말 것이다. 눈앞에 바짝 다가와 시야를 가리고 선 타자는 나로 하여금 그를 볼 수도, 그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만든다. 이렇게 타자와의 접촉을 기약 없는 미래에 부치는 것은 타자를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로 남겨두는 것과 다름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접촉을 통해 어떤 성사도 이루어낼 수 없게 한다. 타자의 다가옴이 보다 상호적인 수용 작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것을 만지는 행위가 만짐과 동시에 만져지는 행위이듯, 즉 애무에서의 접촉이 언제나 쌍방향적으로 발생하듯, 타자에 대한 경험은 타자의 부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자에게 다시 말을 건네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조우를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타자를 호명하고, 현존하는 세계에 불러옴으로써 성취된다. 사랑을 말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실천이다. 잔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명명 불가능함에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언표를 단념해버리는 것이 사랑을 초월적인 무엇으로 신비화하여 그 힘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면, 언표 불가능성 너머 그 불가능성을 통하여 사랑을 말하는 것은 사랑의 있음에 대한 증언이자 사랑이 무능에 빠져버리는 것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

26) 같은 책, 109-110쪽.

이제 남겨진 물음은 '사랑의 아토포스는 어디에 자리하며, 어떻게 말해질 수 있는가?'이다. 사랑의 음성은 기의-기표의 쌍으로 이루어진 언어 구조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지며, 또 맥락화된다. 사랑은 말해짐과 동시에 그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짐을 의미화의 과정으로 갖는다. 사랑의 발화는 사랑의 실체를 묘사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사랑을 구성하는 말하기인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언어는 사실진술사라기보다는 수행사일 때, 비로소 재현의 세계에 하나의 의미로 기입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랑은 '너를 사랑해'라는 언표로만 증언된다. 이때 '너를 사랑해'는 '너를 사랑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으로, 사랑을 향해 도약하려는 생동적인 언어이다. 이러한 수행적인 언표 작용은 사랑의 말해짐이 세계에서 거두는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데리다는 기표-기의 쌍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것은 의미 체계에서 어떤 공간도 가질 수 없기에 유령의 형태로 출몰한다고 언급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죽음이 묻힐 무덤을 가질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바로 이러한 유령의 형상이다. 장례 의식을 통해 완전히 저승으로 건너간 죽음도, 이승에 현존하는 삶도 아닌, 애매모호한 공간에 유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겹쳐있는 공간으로부터 도래하는 유령은 현전도 부재도 아닌 흔적과도 같은데, 타자의 존재 방식이 이러하다. 그런데 레비나스와 달리, 데리다는 타자의 존재를 영원히 포착되지 않는 '낯섦'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그 흔적은 '낯설고도 친숙한' 공백의 자리에 있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자의 비가시성이 타자가 접근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반면, 데리다에게서 타자의 비가시성은 그가 내재적 존재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데리다에게 타자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자"[27]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다시금 유령의 형상으로 도래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었기에)친숙하면서도 (내 것이 아니기에)낯선 무엇으로 존재하는 타자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 타자에게 건네는 말은 어떤 언어를 매개로 할까? 다시 데리다의 말을

27)Alain Finkielkraut, 권유현 역, 『사랑의 지혜』 (서울: 동문선, 1998), 64쪽.

빌리자면, 모든 모국어는 "타자의 언어"[28]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은 환원 불가능한 자기 고유성을 박탈당하는 경험과도 같다. 이는 상징계로 진입하는 순간, 의미화될 수 없는 존재적 고유성이 잔여로 남아있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면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미 타자이다. 관건은 "언어에 대한 다른 경험", "타자에 대한 다른 경험"[29]을 가능하게 해주는 번역어를 발명해내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사랑의 언어는 그것이 갖는 수행성을 통해 현존하는 의미 체계에서 재현될 수 없었던 것, 하여 공백으로 남아있던 것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끈질기게 드러낸다. 이는 사랑이 "'할 수 있음'으로 번역할 수 없는 관계"이자 "번역할 필요도 전혀 없는 관계"[30]가 아니라 반드시 번역되어야만 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은 사랑을 약속하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는 타자-존재와의 어떤 소통을 이끌어낸다. 이 소통이야말로 타자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는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접촉이라 할 것이다. 사랑은 나의 언어나 당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대화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라는 선언은 결국 "고유어의 독특성을 획일화하거나 삭제하지 않고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번역의 경험을 발명"[31]하는 절차인 것이다.

이처럼 동일자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동일자 내부에 타자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우는 목소리는 바로 사랑의 언어로 말한다. 그렇기에 사랑을 말하는 것은 타자를 기표로 만들지 않는 것, 모든 기호가 소멸된 후 남겨진 존재를 불러내는 것, 영구적 개념화에 저항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의미의 세계에서는 어떤 장소를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장소를 부여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언어가 이 세계에 불러일으키는

28)Derrida, 『환대에 대하여』, 111쪽.
29)Levinas, 『시간과 타자』, 107쪽.
30)*Ibid.*
31)Derrida, 『에코그라피』, 134쪽.

반향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사랑은 이미 규정된 세계의 가치 체계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사랑은 세계의 단절이자 새로운 열림으로의 가능성인 셈이다.

김행숙은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당신은 의문형이다. 그 무엇도 손에 거머쥘 수 없는 죽음의 허공처럼 당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야말로 나의 인식 속에 사로잡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당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당신이라는 말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당신이라는 말을 장악할 수 없기에 내게 당신, 당신이라는 말은 사랑의 발음으로 하염없어진다[32)]

현전과 부재의 대립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낯설고도 친밀한 흔적, 그러한 존재의 있음이 유령의 형상으로 출몰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져야 한다. 나의 의미 질서 한가운데서 당신의 존재를 위한 공간이 열리는 시간은 당신이라는 흔적이 하염없이 의문형으로 부쳐질 때이다. 그리하여 '너를 사랑해'라는 선언이 의문형으로서의 당신을 향해 반복될 때, 사랑은 그 선언에 뒤따르는 사후 효과로서 도래한다. 사랑을 말하는 것, 잔여에 대해 말하는 것에 '다시'가 붙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잔여의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또 다시 물어야 한다. 나의 세계 속에서 당신, 당신은 발생되고 있습니까?

성균관 대학교, hjsky23@naver.com

주제어(Key Word):
사랑(Love), 연애(Love Affair), 타자(Otherness), 존재론(Ontology), 연애상품(Love Products)

(투고일: 2015. 10. 19, 심사일: 2015. 11. 05, 게재확정일: 2015. 11. 12)

32) 김행숙, 『에로스와 아우라』, 87쪽.

국문 초록

사랑의 존재론: 오늘날의 사랑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 주 은

본 연구는 사랑을 존재론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사랑이 세계의 단절이자 새로운 열림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랑은 아토포스처럼 의미가 고정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다. 사랑의 언표 불가능성은 사랑이 사랑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 즉 동일자적 자아로 환원될 수 없는 타자 고유의 단독성(singularity)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편 사랑의 비동일자적 성격은 사랑을 예측 불가능한 것, 계산 불가능한 것, 통제 불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사랑의 이러한 성질이 가능한 소거되어야 할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존재 일반을 가치의 질서로 소환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존재가 아닌 의미로 치환된다. 타자의 존재를 기표화하는 연애상품의 출현은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애상품의 발명은 타자의 타자성이 가진 모호함을 계산, 예측하고 더 나아가 통제, 소거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무엇'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사랑이 재현의 절대적 잔여로서 의미들의 관계식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까닭이다. 동일자의 논리에 사이-공간을 내는 동시에 그 틈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실패할지언정 계속해서 시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랑의 발화는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하기가 아니라 사랑을 구성하는 수행적 언표 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랑을 말하는 것은 타자를 기표로 만들지 않는 것, 모든 기호가 소멸된 후 남겨진 존재를 불러내는 것, 영구적 개념화에 저항하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현존하는 의미 체계에서 재현될 수 없었던 것, 하여 공백으로 남아있던 것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언어가 이 세계에 불러일으키는 반향인 것이다. 사랑이 이미 규정된 세계의 가치 체계를 중지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Abstract>

Ontology of Love
: A Critical Review on Love of the Present Time

Joo-eun KIM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possibility of love as discontinuity in the world as well as the possibility toward new openness by thinking about love ontologically. Love has ontological status due to the point that the meaning thereof cannot be fixed as atopos. Locutionary impossibility of love is based on the fact that love is the existence itself of the loved object, that is, a process to approach other original singularity that cannot be reduced to the same self.

On the other hand, non-same self characteristic of love makes love unpredictable, non-computable, and non-controllable, however today, when people pursue safe life, this character of love is regarded as the factor that should be erased as much as possible. Particularly, in capitalism society, which recalls general existence with the order of value, love is substituted with meaning instead of existence. Appearance of love goods that signify the existence of others is an example that well shows such reality. Invention of love goods can be said to be a measure to calculate, anticipate, furthermore, control and erase ambiguity that otherness of others has.

Nevertheless, love reveals its figure with 'something' that cannot be completely removed. This is the reason why love insistently remains in the interaction formula of meanings as the

absolute residue of reappearance. Love comes from that gap, simultaneously with sparing relationship – space in the theory of same person.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continuously try even though talking about love might fail. Speech of love is not to reveal the reality of love, but can be said the performative locutionary action that composes love. Therefore, talking about love can be said in other words that it is not to signify others, recalls remaining existence after extinction of all symbols, and resist permanent conceptualization. Sensation that the language of love arouses in the world is to reveal something that could not be realized in system of meaning that exists at present, accordingly, that has existed in the world remaining in blank. This is why love has the potential to stop already defined value system of the world and adopt new order.